

‘오래 살고 복 누리라’… 韓 대표 차례주



백화수복.

롯데칠성음료

청주 ‘백화수복’… 1만원대 합리적 가격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지닌 ‘백화수복’은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제품이다.

‘백화수복’은 1945년 출시된 이후 오늘 날까지 82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100% 국산 쌀의 외피를 30% 정도 도정 후 사용하고,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방법으로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며, 알코올 도수는 13도이다.

우리 민족의 정성된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라벨은 동양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고 라벨과 캡(병뚜껑)에도 금색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우리나라 대표 차례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백화수복은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며,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음용하기에 더 좋다. 제품 용량은 700ml, 1.8l 두 종류로 이뤄졌으며, 할인점,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82년 전통의 백화수복은 조상들이 사용하던 대로 엄선된 쌀로 정성껏 빚어 만든 청주 제품”이라며 “1만원대 전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차례 음식에 잘 어울리는 맛있는 술”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신원선 기자 tree6834@



GS25에서 모델이 설 선물세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25

‘우리동네 선물가게’ 테마 700종 상품

GS리테일

‘붉은 말 골드바’ 등 다양한 구성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2026년 설날을 앞두고 ‘우리동네 선물가게’를 테마로 총 700여종의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올해는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양극화 트렌드에 맞춰 상품 구성을 ‘프리미엄’과 ‘가성비’로 철저히 이원화했다. 실제 GS25 분석 결과, 지난해 5만원 이하 가성비 상품과 20만원 이상 프리미엄 상품 매출 비중이 동시에 늘어나며 가격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GS25는 ‘병오년(붉은 말의 해)’ 특수를 겨냥해 역대 최다인 18종의 골드·실버 제품을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 말 이

미지를 활용한 ‘붉은 말 골드바’를 최대 1010만원대에 내세운다. 주류 역시 999만 원에 달하는 ‘5대 사포 2016 빈티지 세트’ 등 초고가 한정판 상품을 대거 도입해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한다.

실속형 소비자를 위한 가성비 라인업도 탄탄하다. 5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비중을 전년 대비 40% 늘렸으며, ‘디아블로 원통형 말피에디션’ 등 1만원대 초저가 와인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동원 튜나리썸’ 등 통조림 세트는 사전 행사 기간 ‘2+1’ 혜택을 적용해 개당 3만원대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 미니 금손가락이 들어있는 ‘이천 햅쌀 비락식혜캔’ 세트와 미쉐린 맛집 ‘삼원가든’ 협업 HMR 등 이색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기능성 껌으로 안전운전 선물하세요”

롯데웰푸드

‘졸음번쩍껌’ 연 매출 200억 돌파

롯데웰푸드의 기능성 껌 브랜드 ‘졸음번쩍껌’이 출시 10년 만에 연 매출 200억원을 넘어서며 대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2014년 수험생·운전자·야간근무자를 겨냥해 출시된 졸음번쩍껌은 시장 침체기에도 매년 매출이 성장했다. 현재 매출 규모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으며, 온라인과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의 판매 구조로 목적성 구매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제품에는 천연 카페인이 함유된 과라나추출분말과 멘톨 성분이 들어 있어 구강 점막을 통한 빠른 흡수와 강한 쿨링감으로 각성 효과를 높였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 혈류를 증가시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

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롯데웰푸드는 2024년 자극적인 맛을 줄이고 기능성을 강화한 ‘졸음번쩍 에너지껌’을 출시하며 1030세대 공략에 나섰다. 과라나추출물과 타우린 함량을 기존 제품 대비 3배 높이고 비타민 B6를 추가했으며, 무설탕 코팅껌 형태로 섭취 부담을 줄였다. 패키지와 디자인에도 젊은 감성을 반영했다.

현재졸음번쩍껌은▲오리지널▲울트라파워▲에너지껌 등 3종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품을 무료 배포하는가 하면, 부산항만공사와는 3년간 총 3억 원 규모의 후원 협약을 체결해 안전 캠페인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졸음번쩍껌.

/롯데웰푸드



일품진로 선물세트 라인업.

/하이트진로

오크 숙성기술 기반 프리미엄 증류주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 선보

국내 대표 종합주류기업 하이트진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 선물세트를 총 3종으로 구성해 다양한 소비자 선택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오크 숙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증류주 라인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품진로 오크25’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됐다. 완성도 높은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은 향과 풍미를 구현한 제품이다. ‘일품진로 오크43’ 선물세트는 12년 이상 숙성한 원액을 사용한 제품으로, 375ml 2병과 스트레이트잔 3개를 담았다.

이와 함께 ‘일품진로’ 선물세트는 375ml 13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됐다. 향과 풍

미가 뛰어난 중간 원액만을 사용해 냉동 여과공법과 숙성을 거쳐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일품진로 설 선물세트 3종은 2월 첫째 주부터 전국 대형마트 등 가정 채널에서 판매된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1970년대 국내 최초로 목통 숙성고를 도입한 이후 오크 숙성 증류주 연구를 지속해왔다.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오크 숙성고를 운영하며 온도·습도 관리와 숙성 환경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